하나님의 편식에 서러웠었다

(역대상 4:1~43)

1.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2.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매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24.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25.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26.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27. 시므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편식에 서러웠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편식에 서러웠었다'
한식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한상차림입니다. 밥과 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반찬을 한꺼번에 다 올리는데 한 상 가득히 차려 나오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 시작하다보면 점점 배가 불러오고 많은 음식들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음식은 젓가락 한 번 대보지 못한 채 상을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식당에서는 반찬을 다시 쓸 수는 없으니 그 모든 반찬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유적으로 음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 번도 자기에게 젓가락이 오지 않았다는 서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편식에 많이 서럽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로 집중되는 족보, 다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야곱의 열두 지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게 집중되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여러 가계가 있는데 다윗의 가계에 집중됩니다. 이렇게 집중하시고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덕분에 선택받지 못한 다수가 생기는데 이들의 입장이 젓가락이 닿지 않았던 음식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매번 아브라함과 유다 지파와 다윗의 입장에만 설 뿐 언제 한 번 잇사갈이나 스불론 지파의 입장에 서 본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 선다고 생각하면 서럽습니다. 결

국 다윗 족보에 집중되어진 하나님의 편식으로 인한 나머지 지파들의 서러움은 남북 왕국분열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유다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이 와서 고충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대형공사를 많이 하느라 힘들게 살았으니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충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호소를 거절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의 거절을 듣고 보인 반응을 왕상12: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서러움이 있다면 선택받지 못한 서러움입니다. 평생 선택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내용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실연의 아픔이 서럽습니다. 선거에서 낙마해도 서럽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낙마한 힐러리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을 바라볼 때에 꼭 배반당한 것 같은 서러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도 그렇고 타고난 외모나 타고난 지능 타고난 건강 또한 선택과 선택받지 못함의 문제입니다. 저는 아직 치아가 건강하지만 둘째 형님은 아주 고생을 하시는데 치아도 관리보다 유전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이 말은 곧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친척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입장에서는 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 일곱 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서러운 이유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탁월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선택받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편식에 눈물 나도록 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편식이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집중되고, 아브라함에서 끊임없이 확산되는 족보 가운데 다시 유다 지파로 집중되고, 유다 지파의 다양한 가계 안에서 다윗의 가문에 집중되고 구원사적 섭리의 끝은 마지막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으로 집중됩니다.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는 포로귀환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족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앞서 남 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들 속에서 이미 메시아 예언을 접했을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말했을 것이므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금 유다 족보를 언급하고 이어서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가 언급되는 특별한 이유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첫 지파인 르

우벤 지파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그냥 가져다 붙인 것 같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도 1절에서만 다윗과 연관된 직계 자손들 다섯 명의 이름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윗과는 상관이 없는 유다 지파 내의 여타의 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으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내용을 앞서 2장에서 나왔던 유다 지파 족보의 보충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BC450년경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BC605년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여 BC586년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차 포로귀환하고 지금 BC450년경에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에스라는 역대기를 저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유다 지파의 여타 가계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앞장에서 설명한 다윗에게 집중되는 유다 지파 족보는 메시아까지 도달하기 위해 백성들의 징검다리로서의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함이었지만, 그러나 4장은 이 다윗의 직계 혈통과 무관한 유다 지파의 여타 가계나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므온 지파는 이미 망하기 직전까지의 족보까지 밖에는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를 하며 히스기야 왕 때에 영토가 확장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영토분배를 하였지만 그때에 시므온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가, BC700년경인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야 영토가 확장된 것인데 다시 20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금 경이로움을 느끼게 할 만큼 에스라의 신학적 통찰의 깊이에 감탄하게 됩니다. BC450년경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역대기가 쓰인 것은 다가올 메시아를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를 읽는 백성들의 마음은 미래의 구원사적 안에서 혈통상으로 마지막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앞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는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열한 족보였지만, 이 4장부터는 예수님의 지점에서 지금과 과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내려온 혈통은 예수님께로 도달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직계 혈통상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 하나에 포개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포개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라 볼 때에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혀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중하시고 집중하시고 집중하셨던 선택하신 선민의 범주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유다에게는 가나안 여자 수아에게서 낳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가 있었고, 며느리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베레스가 다윗의 직계 혈통이 되었고, 나머지 아들들 중에 둘은 죽고 혈통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라가 낳은 아들들이 다섯이나 되었고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그 다섯 아들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의 집중효과에서 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중하고 유다 지파에게 집중하고 아브라함에게 집중할 때, 그 집중으로 인해서 버려졌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포개어지며 다윗의 자손이 될 사람들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도 일곱 형들이 있었고 이 후손들이 무한히 뻗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서럽게 버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젓가락 한 번 닿지 않았던 반찬처럼 버려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에까지 다윗 자손에 집중하신 바람에 선택 바깥으로 밀려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준으로 바라보자 버려진 것 같았던 모든 사람들의 자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선택의 가능성을 품었던 자들로서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나은 아들들 중에 며느리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라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이야기가 되었지만, 본처인 가나안 여자 수아가 낳은 세 아들 중에서는 두 명이 죽고 막내인 셀라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셀라와 자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본 장에서 에스라는 그 묻혔던 셀라의 후손들의 족보를 찾아내어 밝힘으로서 그들이 버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버려진 것 같았던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선택했을 때 버려졌던 나머지 지파와 그 지파에 속한 모든 후손들이 에스라의 눈에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선택을 받지 못하고 혈육상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동등하게 서게 되는 것을 에스라는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혈육상으로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로 태어났습니까? 금수저를 입에 물지 못하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부자의 서클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일류대학도 들어가지 못했고 몸을 봐도 예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습니다. 부모님도 가난하고 못 배운 분들이라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자들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세상을 에스라는 보았던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서 버림받았을 지라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포개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못 생겨도 배우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온 세상이 버려도 왕자가 될 수 있는 기이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고, 시므온 지파가 “땅을 확장하여 점령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지경을 넓혔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을 내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기도로서 받아들이는데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은 자신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시므온 지파의 영토 확장의 역사적 사실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점에서 바라볼 때에 다윗 자손으로의 선택의 가능성의 무한한 확산을 표현하는 언어로 채택한 것뿐입니다.
에스라 자신도 생전 생각해보지 못한 세상을 마음속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담으로부터 한없이 퍼져나가던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한없이 퍼져나가던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로 집중되고 유다 지파 중에 한없이 퍼져나가던 수많은 가계 중에 다윗 자손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가 다윗의 마지막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그간 선택받지 못했던 것처럼 여겨졌던 모든 후손들의 운명을 이 족보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즉, 에스라가 앞서 말했던 다윗의 직계혈통 이외의 다른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서 복음을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족보 이야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에스라는 신세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달하는 것만을 과제로 알고 징검다리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더니 마음이 오실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실 예수님의 지점으로부터 과거를 돌아보자 그동안 관심도 없었고 서러움에 묻히고 잊혔던 모든 사람들의 후손들의 존재감이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유다 지파와 다윗에게 집중하셨던 의도가 처음부터 확산을 목적으로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제대로 된 선택을 받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인 셀라처럼 완전히 묻혀서 잊혔거나 시므온 지파처럼 특별히 미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유다 지파이면서도 다윗의 빛에 가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다윗의 직계자손 못지않게 당신의 아들딸로 선택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준으로 다윗 자손의 선택의 범주는 나같이 보잘 것 없고 미약한 사람까지도 포함하도록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포개짐으로서 다윗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전까지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하나로 정리해보면 악에 진 인격입니다. 그 증거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누적된 죄악을 끌어안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의 자손이 된 우리는 이제 내 안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마지막 다윗의 자손인 주님께 포개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선택하신 증표가 될 것입니다. 에스라가 보았던 경이로운 세상이 여러분의 세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나 스스로가 다윗의 자손으로 선택 받았음을 확인하며, 에스라가 바라본 경이로운 세상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